

# 목포 삼학도 '옛 모습 찾기' 지지부진

### 석탄·해경 부두 2014년이나 이전... 해변 쉼터 등 공사 중단에 관광객 불편

올 연말 완공예정인 목포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석탄부두·해경부두 이전 등이 늦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다. 목포시는 당초 올해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석탄부두 이전 등 사업 핵심지구내 시설물 이전이 늦어지는 등 지지부진, 3년후에나 준공이 가능해 장기 공사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에 호안 수로공사가 끝나면서 매립돼 사라졌던 3개의 섬이 옛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았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1243억원이 투입되며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삼학도 핵심지구에 있는 석탄 부두와 해경 전용부두 이전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석탄부두는 목포 신항으로, 해경부두는 북항으로 이전이 확정돼 부두 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가 더더 오는 2014년이나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이 이전하지 않으면 해변 쉼터나 해상 데크, 미니어처 공원 등을 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제분 밀 저장시설과 공장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 나지 않는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결론이 나가지지 않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학도에서 40년 가까이 밀가루를 만들었던 한국제분은 목포시로부터 건물과 영업보상을 받아 다음 달까지만 가동을 하고 오는 6월에는 충남 당포로 이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한국제분은 물론 석탄부두 이전과 해경부두 축조에

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면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학도는 지난 1968~1973년 섬 외곽에 독을 쌓고 안쪽 바다를 메워 육지로 변했으며,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면서 섬 기능을 상실했다.

목포시는 지난 2000년 삼학도 일대 57만여㎡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섬 복원과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물으로 변한 중·소삼학도 사이에 길이 760m, 너비 20~40m, 깊이 2m의 수로를 파 분리하는 등 섬 주위에 모두 2천 242m의 수로를 만들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조합법인 씨앗과 사람들은 최근 진도대과 대표 품종육성을 위한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현장비교 결과평가를 개최했다. 센터는 오는 2012년까지 진도 기후와 토질에 맞는 대표 대과품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진도군 제공)

## 다도해 해양국립공원 식수난 도서지역 지원

다도해 해양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최근 식수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에 식수를 긴급 지원했다.

24일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진도 조도면 광도 등 10개 도서 주민 75명에게 최근 500ml 페트병 물 1만4000병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식수 긴급지원은 서부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관리단(단장 고영환)이 협력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조도면사무소에서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급수선과 행정선을 지원했다.

황정걸 서부사무소장은 "공단이 보유한 선박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섬주민들을 지원한 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식수자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 "예산 부당집행 진도군 공무원 징계를" 권익옹호, 전남도·군에 통보

진도군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진도군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도와 진도군에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제보 내용은 지난 2009~2010년 진도군이 홍보 명목으로 19개 기관 800여명 공무원에게 800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선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위 공무원의 횡령 의혹과 군의 수의계약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희영기자 hypark@

## 초의문화제 개최 29~30일 해남 대흥사서

'제20회 초의문화제'가 오는 29~30일 이틀간 해남 두륜산 대흥사와 일지암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와 (사)해남다인회가 주관하고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대흥사 범각 주지스님·해남다인회 윤형식 회장)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9일 초등학생 500여명이 참여하는 녹차만들기 체험과 내 몸의 녹차체험학습 행사 등 대흥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30일에는 부도전에서 열리는 조사대례를 시작으로 초의선사 동상 앞에서 육법공양을 비롯해 전국의 차단체들이 참여하는 찾자리 시연과 다무 특별공연, 차와 우리가라의 만남 등이 이어진다.

【서부취재본부=박희영기자 dia@

## 무안 생태갯벌센터 자연학습장으로 각광

보고 만지고 직접체험 학생들에 인기

무안 생태갯벌센터가 학생들의 자연학습 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갯벌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상태의 원시성 보존 관리와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해 해제면 유월리 일원 부지 6만㎡에 전체면적 3277㎡의 생태갯벌센터를 건립하고, 갯벌 생태공원과 갯벌 탐방로·조류 탐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최근 생태갯벌센터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다목적 영상관과 갯벌생태 탐사관에서 해양생물의 생명력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보고, 직접 만지는 체험을 했으며, 3D입체 영상물을 통해 살아 숨쉬는 갯벌생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생물 관찰데크와 전망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는 등 갯벌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배

## 무안 생태갯벌센터 자연학습장으로 각광

울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갯벌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시켜 주는 두 생태의 연결고리"라며 "무안지역을 찾는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월요일 휴관)까지이며, 관람료는 ▲어린이 500원 ▲청소년·군인은 1000원 ▲65세 미만 일반인 1500원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무안 생태갯벌센터가 학생들의 자연학습 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갯벌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상태의 원시성 보존 관리와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해 해제면 유월리 일원 부지 6만㎡에 전체면적 3277㎡의 생태갯벌센터를 건립하고, 갯벌 생태공원과 갯벌 탐방로·조류 탐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전 북

## 민노총 파업 전주시내버스 한국노총도 한때 운행거부

출근길 시민 큰 불편

민주노총의 파업 와중에 지난 22일 한국노총까지 전면적인 운행 거부에 들어가면서 전북 전주시역 시내버스가 오전 한때 완전히 멈춰 섰다.

한국노총 산하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시내버스 384대가 모두 멈춰 섰고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주 시내버스는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384대 가운데 320여대가 운행돼 왔으며, 이들 버스 대부분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한노총은 "조합원들이 극도의 피로를 감내하면서 민주노총 뒤의 운전대까지 잡아왔는데도 전주시 등이 버스 회사에 쫓겨 할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가 운행 거부에 들어가자 전주 시와 회사 측은 조합원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전 6시를 넘어서면서 일부 차량이 운행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또 택시 3913여대의 부채를 긴급히 해제하고 주요 승강장에 안내문을 붙이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으나 사전 예고 없는 기습적인 운행 거부에 최악의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다.

제때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은 빗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려야 했고 지각하는 직장인과 학생이 속출했다.

한국노총 노조는 "운행 거부는 일단 22일 하루이며, 추가 운행거부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승철기자 k0765@

## 바닷속 폐 그물 '해양사고 주범'

어민들 투기에 군산 앞바다 어선들 잇단 기관 고장

군산 앞바다에 버려진 폐(廢) 그물이 떠나다며 해양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어민들의 폐 그물 투기 자제와 수거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추진기에 떠다니는 그물과 밧줄 등이 감겨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방 3km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어선이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면서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침수됐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추진기 장애로 말미암은 사고가 8건에 이른다.

폐 그물과 로프 등은 대부분 수면 아래 0.5 ~ 1m 가량 잠겨 있기 때문에 선박 항해시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에는 비응항 안에 쌓아놓은 폐 그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여러 어선으로 불이 번질 뻔한 사고도 있었다.

군산해양 관계자는 "노후 그물은 수습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납하면 일부 보상도 해준다"면서 "버린 그물은 내가 운항하는 선박에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바다에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김제에 KTX 하루 3회 정차 해달라"

시민들 서명운동

오는 2015년부터 운행되는 호남고속철도 정차구간에서 제외된 김제지역에서 현 역사를 이 전해 KTX가 서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충남 오송에서 경부 고속철도와 나뉘진 뒤 공주~익산~정읍~광주를 거쳐 목포역에 이르며, 김제는 정차역에서 제외된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KTX열차가 김제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은 "김제역을 KTX가 지나는 순동 사거리로 이전하면 혁신도

시에서 10분, 전북도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시민과 도민의 교통편의성이 도모되고, 새만금과 변산반도로 이어지는 서해안관광벨트 구축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역사를 이전하고 KTX가 하루 3회 이상 정차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전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대두해 이달 초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김제역 이전과 KTX 정차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시민 여론이 모이면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윤성기자 hnews@



새만금 방조제 달리기 24일 열린 '제8회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마라톤들이 협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1만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3.9km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열렸다. (군산시 제공)

## 군산 도요 물떼새 보호 지자체·민간단체 협력

전국의 자치단체와 민간인 단체, 학교 등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이동철새인 도요류와 물떼새류의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국의 40개 자치단체와 민간인 단체, 학교 관계자 등 80여명은 지난 22일 군산 철새조망대에서 '한국 도요 물떼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한국 도요물떼새 네트워크는 갯벌 지역을 찾는 도요물떼새의 보전을 위해 모인 협의체로, 신안군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선진국과도 갯벌보전에 관한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한국도요물떼새 네트워크의 조직구성과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올해 33개 주요 도요물떼새 도래지역의 조사를 6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갯벌과 도요물떼새에 관한 교육, 서식지 현황 분석 등 도요물떼새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단 신 새만금·고군산열도에 대형유람선 운항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열도를 운항하는 대형 유람선이 다음 달 댈다.

24일 군산시와 군산해경에 따르면 ㈜33새만금해상관광이 제주 추진하는 945t급(승선인원 1000명) 유람선의 운항이 이르면 다음달에 개시될 예정이다. 이 회사

## 정읍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민 소통의 날'

정읍시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시민소통의 날'로 지정, 본격적인 '시민 소통행정' 구현에 나섰다.

'시민소통의 날'은 온·오프라인으로 대화 신청이 가능하며 집단 민원, 생활민원, 고충민원, 정책제안 등 공공성, 공익성 안건에 대해

## 김제 친환경 쌀 3만t 제주도에 공급

김제의 친환경 '지평선쌀'이 제주도에서 가장 판매된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진출한 ㈜전북복합농업농업회사법인인 제주도에 에워잡에 하루 50t의 쌀 가공라인과 저온저장고 10기를 준공했다.

이 시설은 김제에서 무농약 우

## 남원시, 中 항정우시와 교류 협력 강화

남원시가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와 교류협력력을 강화한다. 양 시는 상호신뢰와 협력정신에 따라 문화, 예술, 교육, 여행, 체육, 환경분야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추진 등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항저우시 측은 당초 5월14일로 예정됐던 광한투원에서의 '제1회 항저우 시민 합동 흥례행사'는 일련의 방식선 누출유려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해 가을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